김원영

엘리베이터가 멈춘 건물을 빠져나가는 영장류의 손

도심 지상과 지하철역을 잇는 엘리베이터는 그것이 아니라면 연결될 수 없었을 두 세계(para-words)의 교차점이다.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유아차에 탄 아이가, 여행가방을 든 외국인 관광객이 만난다. 이들은 서로에게 호기심을 품고, 경쟁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비상상황'에서 언제나 멈출 수 있다. 이 비상상황(예외상태)의 가능성이 두 세계가 언제나 'para-'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것 같다. 하지만 바로 이 가능성을 현실의 일부로 인정할 때야 말로, 'para-' 세계들 사이의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일지도 모른다.

***

엘리베이터

지하철을 이용할 때면 나이 많은 시민들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사당역은 늘 이용객들로 붐비는데, 하나뿐인 환승용 엘리베이터는 크기도 작아 평일 낮 시간에도 긴 줄이 늘어선다. 60대-80대 정도의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

서울 지하철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시간을 20초로 설정해 두었고 '닫힘' 버튼은 작동하지 않는다. 장애인 탑승 시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해는 가지 않는다. 움직임이 느려 꽤 긴 탑승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자동으로 문이 닫히는 시간을 길게 설정한 점은 이해가 가지만, 닫힘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건 왜일까? 내가 대략 2초 만에 타도 문이 닫히려면 18초를 기다려야 한다. 11초쯤 남았을 때 10미터 앞에서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는 75세의 남성이 걸어온다. 아아. 내가 열림 버튼을 지금 누르면 다시 20초가 연장되므로 내가 탑승하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기 까지 29초가 걸리는 셈이다. 그렇다고 75세의 시민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가 부디 11초 안에 10미터를 주파해주기를 바라지만, 단념하고 열림 버튼을 누른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가 닫힘 버튼을 눌러보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그는 "이게 왜 안 닫히나"라며 무안해한다.

다시 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10초쯤 남았을 때 72세의 여성이 짐 보따리를 들고 걸어온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그는 자신을 위해 내가

기다렸는데 자신은 기다리지 않으려 하니 죄책감을 느낄 법하다.
결정권은 내가 쥔다.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열림 버튼을 누른다. 72세의 여성이 탑승하며 말한다. “아이고 날이 덥네요. 요새 무릎이 아파서 이거 참” 그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자신이 나신보다 위로 보이는 사람과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시간을 지체시킨 것 같다는 민망함에 날씨와 무릎 탓을 한다. 내가 탑승하고 1분여가 지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지하철역 엘리베이터가 생긴 사연은 길고 어려운 이야기다. 한 가지만 말하면, 서울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는 2000년대 초까지도 드물었고 그걸 만들어달라는 장애인들이 거센 시위를 했으며, 그럴 때면 어떤 고령의 시민은 “왜 여기서 이 난리냐. 북으로 가라!”고 외쳤다는 것이다(참고로 평양의 지하철은 전쟁상황을 대비하여 지하 수백미터에 지어진 방공호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과연 평양 지하철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까?). 하여간 이 시대를 지나며 나이 들고, 아프고, 커다란 캐리어를 든 여행객과 휠체어 이용자는 엘리베이터를 함께 이용한다. 평소라면 잘 만나지 않는 우리는 이 작은 기계 안에서 교차한다.

현실에는 평화로운 공존만큼 불편함과 갈등이 있는 법이다. 70대의 시민들은 자신들이 청년이나 중년이던 시절에 휠체어를 탄 시민을 거의 보지 못했을 것이고 함께 지하철을 타는 일은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들은 2020년대의 시민윤리에 둔감한 편이다. “그런 건(휠체어) 얼마짜리요?” 이런 질문을 (꽤 자주) 받으면 3.3제곱미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이걸 팔라는 소리인가? 싶지만, 물론 그건 아니다. “바퀴 하나에 500만원입니다.” 나는 답한다. “이게?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당연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다. 하지만 나는 3.3제곱미터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있는 내가 비록 ‘사지는’ 멀쩡하지 않아도 자본주의사회의 상류계층인 척하며 잠시 허위의 (그리고 잘못된) 평등이라도 만들고 싶다. 난감할 때도 있다. “그래요? 허..이거 참. 아니 우리 마누라가 얼마 전에 풍이 와가지고 걷지를 못하게 됐거든. 그런 걸 타고 다니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아저씨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니고 싶은데 다 다니고. 그렇게 비싸서야 원...이게 자동이라 그렇게 비싼가 보구먼”

나는 표정을 바꾼다. 그리고 가장 기본형의 전동휠체어라면 천천히 동내 산책하는 정도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고, 가격은 200만원 대이며, 그중 80%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해준다. “요새는 걷기 힘드셔도 이거 속도 천천히 해서 다니시면 서울 시내에서는 어지간히 다닐 만 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라고 말한다. 플랫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나는 그와 같은 칸을 타기가 부담스러워서 빠른 속도로 멀리 이동한다.

‘파라-’의 진실

엘리베이터는 인간의 수직 이동성을 현저히 높인다는 점에서 다수의 인간을 고도로 집적해 생산성을 창출하는 도시문명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것은 특히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자들에게 거대한 3차원 공간을 열었다. 이전까지 걷지 못하는 자들은 바닥에 붙어 기어 다녔고 운이 좋으면 바퀴가 달린 의자를 타고 다녔지만 그들에게 수직 축을 따라가며 펼쳐진 공간들은 허용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말하자면, 걷지 못하는 자들의 곁에 있지만 만날 수는 없었던 파라para-공간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셈이다.

무엇에 병행/평행한다는 의미를 담은 접두어 파라para는 우리 시대에 장애를 가진 몸들을 의미하는 기호로 자주 쓰인다. 이를테면, 이 몸들을 대상으로 연예계 산업에서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제공한다는 사업체 이름은 ‘파라스타 엔터테인먼트’다. 장애인 올림픽을 지칭하는 용어인 패럴림픽(the Paralympic) 역시 파라를 접두어로 삼는다. ‘파라’에는 ‘동등하게’ 병행한다는 의미 외에 그것 밖에서- 그것을 넘어선다는 의미도 있다. 무엇의 곁에서 평행한다는 말은 그 ‘무엇’과 교차하지 않은 채 그 밖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패럴림픽은 올림픽과 ‘동등한’ 지위에서 병행하는 행사를 지향하지만 올림픽과 교차 되지는 않는다. 그리스의 장애인 육상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첨단 의족을 끼고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후 올림픽 출전에 도전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출전을 둘러싸고 올림픽위원회 안에서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출전 허락을 받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무대에서 뛰었다. 그는 말하자면 이 ‘평행하는’ 두 세계를 가로지른 거의 유일한 사람인 셈이다(잠시 영웅이 되었던 피스토리우스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지금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엘리베이터가 연결한 기존의 ‘파라-’ 관계의 공간들을 생각해보자. 학교, 각종 공공기관, 공연장, 미술관과 박물관, 홍대 지하의 클럽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이제 그 공간과 그 외부(혹은 1층의 공간)는 더 이상 ‘파라-’의 관계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평행하는 공간들을 엘리베이터라는 장치를 통해 교차시킴으로서 이전에는 아니었던 인간들 간의 ‘동등한’ 만남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파라-’라는 기호가 지시하듯(동등하면 교차하지 않는다. 교차하면 동등하지 않다),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는 만나기는 하지만 여전히 동등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평행하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에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고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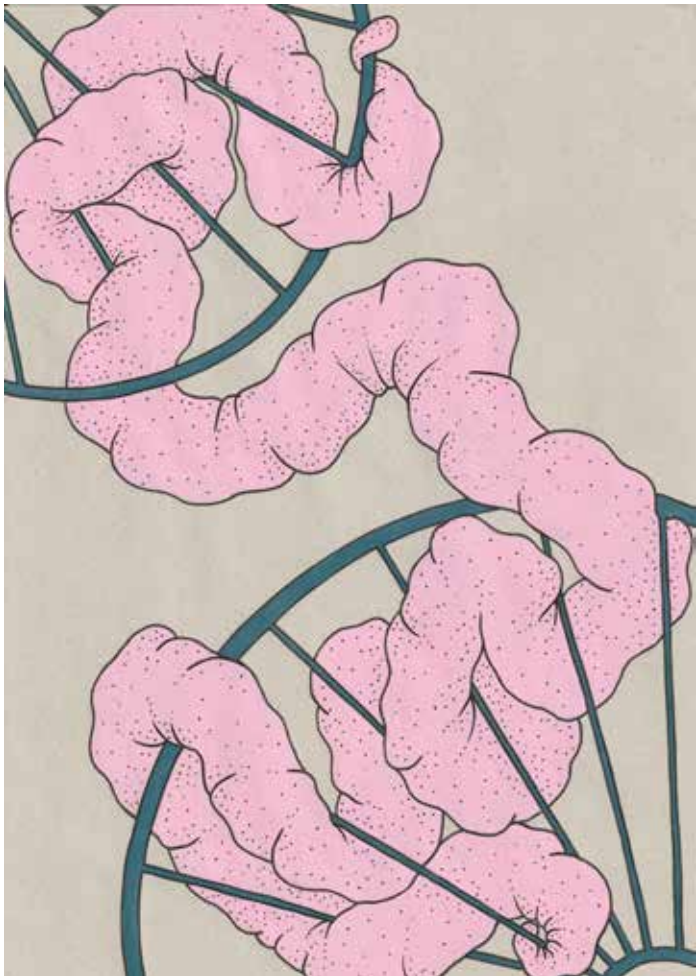
만약 서울 홍대의 어떤 클럽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고, '수직이동'이 대체로 불가능한 나와 '수직이동'이 원활하게 가능한 당신이 함께 클럽에 들어가 춤을 추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국의 클럽문화에 등장한 '급진적인 정치적 실천'의 증거를 수집해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할 것이고, 조금 덜 세련된 문화자본을 지닌 클럽 매니저는 자신의 트위터에 '착한 클럽'을 만드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는 감상을 남긴다. 엘리베이터는 마침내 '파라'했던 공간들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고 우리는 '교차'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동등한가?

2023년 여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학부모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문제가 되었다. 동시에 어느 유명 웹툰 작가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학대한 교사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상황은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인지적 측면에서 '수직이동'이 어렵다고 여겨지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분리된(엘리베이터 따위는 없었던 para- 공간) 학교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에 직면해있다. 그 여론은 온라인 게시판에서 놀라울 만큼 직설적이고 명확한 메시지의 형태를 취한다.
"장애인들은 따로 교육시켜야지 왜 멀쩡한 애들 피해를 주면서 같이 있게 하는가" '파라-'라는 기호의 의미- 동등한 것은 교차하지 않는다. 즉 교차하는 것은 동등하지 않다.-는 삶의 진실을 드러내는 걸까?

엘리베이터는 때로 멈춘다. 고장이 나거나 안전점검을 할 때, 정전상태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만약 지하철 역사 안에서 또는 특정 건물 내에서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벽으로 차단되는 비상용을 제외하고 모든 엘리베이터가 멈춰 설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안전에 관한 교육 영상은 재난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차분하게 입과 코를 천으로 막고 탈출하라고 알려준다. 나는 계단을 기어서 내려가는(올라가는) 상상을 종종 한다. 평소라면 가능할 것이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뛰어 내려온다면 발밑의 나를 밟고 지나가지 않을까?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건물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고, 그때 이웃에 살던 사람이 그의 집을 찾아가 그를 대피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시대에는 옆집 사람과 모르고 지내는 것이 최상이라고 믿는다.

런던의 한 호텔에서 개인별 비상대피계획(PEEP: Personal Emergency Evacuation Plan)을 작성하는 시트를 받았다. "당신을 도우려면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등의 질문이 있었다. 나중에 재난대피에 관한 연구작업을 하면서 살펴보니 이러한 개인별 계획의 수립은 공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의무사항이었다. 내가 '두 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났을

때 두 명이 나를 구하러 올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약간은 마음이 놓인다. 용기 있는 행동은 물이 끓은 일과 같아서, 마음이 99도에 이르러도 결국 1도가 모자라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 반대로 말하면, 99도에서 미세한 신뢰, 상상 가능한 대안이 더해지면 행동을 만든다. 15층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불이 나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인터넷에 접속해 SNS에서 유서를 쓸지도 모르지만, 비상대피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면 그들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리라고 완전히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나는 최소한 휠체어 바퀴만이라도 등에 짊어진 채 계단을 기어서 탈출하는 용기를 낼 것이다. 11층쯤에서 나를 도우러 뛰어오는 두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니까.



현실원칙

2023년 한국장애인국제무용제(Korean International Accessible Dance Festival, KIADA)에서 공연한 솔로 작품 현실원칙Reality principle에서 나는 줄타기를 연습했다. 가느다란 고무줄을 무대 앞과 뒤를 가로지르도록 걸어두고, 그 위를 두 발로 타고 놀았다. 물론 줄 위에 선 것은 아니다. 나는 눕거나 두 팔로 바닥을 지탱한 채 발만 줄 위에 올렸다. 내 발은 땅을 딛을 힘이 거의 없지만 발가락을 넓게 펼쳐지거나 오므리며 줄을 가지고 놀 줄은 알았다. 일반적인 수직이동에 쓸모없는 발을 줄 위에서 가지고 놀 때, 그 과정을 작가

김샨탈이 사진에 담았다. 사진 속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 발들은 생경하기 그지없었다. 휘어진 종아리와 제멋대로 난 지저분한 털들, 확 벌어진 발가락과 울퉁불퉁한 관절들이 보였다. 어떤 사진에서 그것은 영장류의 손처럼 보였다.

줄타기는 추락의 위험을 전제하고서야 성립한다. 바닥에 등을 대거나 팔로 바닥을 짚고서 줄을 타는 일은 그러므로 애초에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연습 내내 그리고 실제 공연에서 그것을 '줄타기'로서 경험했다. 작업을 함께 만드는 무용수 동료들과 관객들 앞에서 발을 드러내고, (심지어 가까이서) 사진을 찍고, 기록으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인가에 실패하는 순간 그 모든 움직임과 기록들은 나를 기이freak하고, '동물적'이고, '동등하지 않은' 몸으로 추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다.

비상상황에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금 이어진 공간들이 언제까지고 교차하지는 않음을 말해준다. 재난이 발생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공간은 단절된다. 당신과 내가 클럽에 있을 때 불이 난다면, 다른 모두는 걸어서 탈출하고, 그 사이에서 당신과 나는 어쩔 줄 모를 것이다. 어둡고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 우리만 남겨진다. 나는 당신에게 나를 놔두고 일단 먼저 탈출해서 구조를 요청해달라고 말하거나, 절대로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말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을지도 모른다. 어쨌건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파라-시공간에 놓인다.

장애를 가진 몸을 드러내는 공연과 그 기록이 언제든 나를 '프릭"으로 추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서울무용센터의 연습실과 관객이 가득한 아르코 소극장 무대의 헐거운 '교차'를 말해줄 것이다. 나는 분명 동등한 관계로 나의 동료들과 함께 작업을 만들었고 장애가 있는 몸이 춤추는 무대를 기꺼이 볼 의향이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했다. 김샨탈 작가의 카메라는 내 다리-발로부터 '프릭쇼'의 흔적을 포착할 의도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 그것이 실패할(멈출-추락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현실원칙' 때문이다. 절대로 고장 나지 않는 엘리베이터로 연결된 학교, 극장, 클럽에 우리가 동등하게 춤추고 있다고 믿었다가 만약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절대로 (프릭으로) 추락할 리 없다고 믿고 마음껏 영장류의 팔을 닮은 짧고 가느다랗고 휘어진 발을 내놓고 줄타기를 하다가 추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이트가 말하는 현실원칙은 말하자면 안락함과 쾌락을 선사하는 가상의 '동등함' 밑바닥에 흐르는, 정말로 동등하다면 절대로 완전히 교차할 수는 없을 거라는 '파라-'의 논리를 잊지 말라는 충고다.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만나 서로의 다른 정체성과 조건들을 교차하고 있다면 그 '교차'는 일시적이거나 실은 우리가 동등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상이 주는 쾌락을 적절히 유예할 때, 실재 reality에 접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줄타기에 실패하고 추락할 가능성, 엘리베이터가 재난상황에서 멈출 가능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이 삶에 냉소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우리가 이 실패의 가능성을 전제함으로써, 비로소 진실한 만남의 가능성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런던 호텔이 내게 제공했던 개인별비상대피계획(PEEP)은 우리가 실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백히 한다. 재난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른 조건에 놓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고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대화를 제안한다. 아마 실제 재난상황에서 PEEP의 쓸모는 제한적일 것이다. 커다란 전동휠체어를 타고서만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을 8층 건물에서 어떻게 계단 아래로 이동시킨다는 말인가(특수한 재난 대비용 리프트가 필요하다). 그러나 PEEP의 존재는 재난이 발생한 특수한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공간적으로 완전히 '평행선'을 그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재난이 벌어지지 않은 바로 지금 이 공간의 '현실'을 재구성한다. 마찬가지로 줄타기에 실패하고 '프릭'으로 추락할 수 있겠지만, 바로 그 추락의 순간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을 때, 지금의 현실도 재구성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나는 문화적 장치(가상-쾌락)가 멈춘 순간(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순간, 공연이 실패한-줄에서 떨어진 순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한다. 고장 난 엘리베이터 앞에서 72세, 75세 노인과 나는 무엇을 할까. 클럽에서 춤을 추던 당신과 나와 다른 누군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완전히 실패한 공연 앞에서,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줄타기를 구경당한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현실 원칙 사진·김샨탈

https://bigfootnotes.wordpress.com/

저자 소개

김원영은 작가이자 공연예술가, 변호사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했고 장애, 기술, 예술의 관계에 대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공연예술가로서 그는 주로 무용 공연을 창작하고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 잉고 니어만
일러스트레이션: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한국어판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 2025, 김원영, 에바 파브레가스 & 와일드 퍼블리싱
스위스 바젤 응용과학대학교(HGK Basel FHNW) 예술 젠더 자연 연구소(Institute Art Gender Nature) 소속 기관